

3대가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영광 물무산 행복숲'



한국관광공사,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 선정 2018년 개장 힐링체험 갖춘 종합 산림복지숲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번 비대면 관광지 100선은 가을·단풍을 테마로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광지, 개별·가족단위 위주 테마 관광지, 자연환경이 중

심인 관광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3월 개장된 '물무산 행복숲'은 숲의 기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숲길 곳곳에 숲속 둘레길 10km, 맨발 황톳길,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숲 예술

원, 하늘공원 등의 힐링체험 공간을 갖춘 종합 산림복지숲이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 둘레길은 계단과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바닥에 닿는 황토의 푸근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맨발 황톳길,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유아숲 체험원과 숲길 곳곳에 편백명상원, 소나무숲예술원 등 온 가족이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풍성한 안전하고 편안한 비대면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을 축하하며, 여든 살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섯 살 배기 손주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걷는 '3대가 함께 걷는 숲',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 마음을 치유하는 물무산 행복숲'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 '하얀모래섬' 우이도,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섬

신안군, 반려인 1000만 시대 맞아 추억의 장소 조성

신안군의 하얀 모래섬의 우이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 동물과 다양한 식물이 공존하는 우이도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도록 조성한다. 신안군은 2019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가고

싶은 섬 우이도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섬 문화와 역사, 생태환경이 보존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기본 테마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이도 마을간 연결 도로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101마리 달마시안 점박이 개, 프란티스의 개 파트라슈, 설화와 전설에 등장하여 주인과 사람의 생명을 구한 명견 등을 형상화하고, 동물의 생명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반려동물장묘시설(화장장, 납골당)을 확충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견호텔, 애견동반 가능한 민박시설, 달뜰물랑 산책로와 놀이터, 애견전용 풀장도 함께 설치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할 관광객 맞이 위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섬 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개와 함께 사는 법' 등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상생하고, 곁과 속이 다 아름다운 '펫섬'으로 조성한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돌입

다음달 6일까지 접수 온라인·현장방문 병행

목포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체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

원금으로 전년 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체한 조치 150만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그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이후 사업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접수자 물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받으며 이후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목포=박정수기자

신안 한밭마을, '자연정화생태습지' 하수정화에 탁월

사업비 3억원 투입 지난 6월 완공... 1/10 예산절감



신안군은 도초면 한밭마을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대신 주민 친화적인 공간이자 생태환경 보존에 매우 유용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했다. 생태습지 조성은 도초면 만년리 835-1번지에 습지면적 1,862.8㎡(563평)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6

월에 완료했다. 마을의 생활하수가 모여들던 동네 앞 논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 생태습지는 침전과 저류, 미나리와 연꽃, 물개구리밥 등 친환경적인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작용을 거쳐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10분의 1비용으로 설치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체험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마을과 인접한 수변공원으로써 역할을 하여 주민 정주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가 된다. 아울러 수질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BOD 및 COD는 2배, SS(부유물질) 2배, T-N(총질소) 6배, T-P(총인) 3배가 제거되어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밭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자연정화 생태습지의 수질 개선효과가 검증됐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특성에 맞는 지역을 더욱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마을경관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판로 개척 및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협약

내달 농특산물 품평 박람회

영암군은 16일, 군청 남산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와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농특산물·관광관로 개척 및 창업·일자리 창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전남 내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 수도권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 창업 멘토링과 우수 인재 양성 및 인재 매칭 취업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영암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첫 협력사업으로 11월 1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2020. 氣찬들 영암 농특산물



품평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사인 GS 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 한화 갤러리아, 신세계백화점, Y-MART 등 국내 유력 20개 유통회사 MD들이 참여하여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해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계약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또한 영암군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2021년부터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영암군에 청년창업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